

COVID-19 이후 세계를 건설하는 지방 정부:  
공공 서비스 및 인권 과제

가브리엘라 라모스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부 사무총장보]

UNESCO 와 통합도시 및 지방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제 10 차 세계인권도시포럼 제 3 차 본회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가브리엘라 라모스이며 UNESCO 사회인문과학 부국장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개최해 준 광주시에 감사드리며 이번 세션에서는 'COVID-19 이후 세상을 건설하는 지방 정부: 공공 서비스와 인권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도시들은 급속한 도시화, 인간의 이동성, 기후 변화, 증가하는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이것들도 모자라 이제는 COVID-19 대유행 등 현대 사회를 괴롭히는 다양한 도전의 최전선에 있으므로 인권을 수호하고 보호하는 그 선봉에 서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위기 동안 도시의 중요한 역할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는데 이 위기에서 지역 대응은 가장 취약한 집단, 즉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집단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위기 동안 도시들은 생명을 구하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선봉에 있었습니다. 대유행 이전에도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증가되고 있었으며 현 시점에서는 확연하게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조치가 강화되어야 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지방 정부는 교육, 보건, 경제 안보 분야를 포함한 포용적 사회 정책 개발과 공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발전에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불평등이 심한 세상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 그러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방 정부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을 포함한 인권의 '지역화' 노력은 모든 인권도시 의무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보다 넓은 의미의 인권은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저는 Amartya Sen 의 "개발은 우리가 이끄는 삶과 우리가 향유하는 자유를 향상시키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고자 하며 그것은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UNESCO 는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와 해비타트 III (Habitat) 의 새로운 도시 어젠다(New Urban Agenda)를 통해 도시가 그 목표들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계적인 담화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진보를 이루었으며 전 세계 500 여 도시의 글로벌 플랫폼인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국제연합'을 통해 오늘날 세계에서 도시화의 인간 모습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도시들은 현재의 사회변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병폐와 싸우기 위해 노력하는 공통된 목소리로 행동합니다. 이는 또한 도시포용의 필수요소로서 성평등과 청소년 권리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지방과 지역정부 간의 글로벌 연대와 협력에 있어 선구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성과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 COVID 19 위기의 주요 피해자로서 잃어버린 세대를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COVID 19 이 우리의 삶과 도시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여러 도시에서 고용 및 금융 서비스 접속에 대한 UNESCO 의 데이터는 방대하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영향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인구의 70%는 고용서비스 접속이 어려운 반면 54%는 금융서비스 접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성 장벽 외에도 COVID19 기간 동안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차별요인은 사회적 지위로 우리의 요청에 응답한 인구의 24% 였으며 정치적 정체성이 21%로 근소하게 뒤를 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차별에 대한 새로운 행동을 요구하며 도시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처럼 위기 때 복합되는 경향이 있는 인종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오는 이 해악에서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의료진, 간병인 또는 소위 “필수적인 일꾼” 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어깨에 가해진 매우 불공정한 부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성들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폭력의 희생자로서 실제로 이 의제의 핵심이었다는 것이며 대유행 전염병이 발생하기 12 개월 동안 성에 기초한 폭력이 2 억 4 천 3 백만 명의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유행은 실제로 여성들의 개인적 진실성에 대한 위협에 노출되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문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고립, 재정적 및 식량의 불안정, 실업, 학대자로부터 탈출 불가능 등의 악화 요인으로 인해 이 숫자는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UN Women 에 따르면 특정 국가에서 봉쇄 조치가 있는 지 며칠 만에 가정 폭력과 친밀한 파트너 폭력이 30 %에서 50 %로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물론 보안 서비스조차 없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남성과 비교할 때 여성이 1.8 배 더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원 취약상태보다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더 취약해지는 것은 잘 알려진 악순환으로 충격의 시기에는 상황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가 위기 때 성에 기초한 대응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2008 년 금융위기와는 달리 이번에는 더 큰 타격을 받은 부문들이 여성들을 과대 대표하고 있습니다. 5 억 2700 만명의 여성들이 숙박 및 음식 서비스, 부동산, 제조업, 소매업 등에서 일하고 있으며 여성 42%가 이 부문들 비공식 경제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빈곤층으로 살 수 있는 UN 의 추계 2 억 1400 만명에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있으며 소녀들은 또한 학교 폐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많은 수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문제는 대유행에 대한 대응의 최전선에 있으며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악영향의 규모를 인식하고 나아갈 길에 대해 집단적 성찰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지역 인권 대책은 기존의 사회 문제 악화에 있어서 COVID-19 대유행의 영향을 완화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 세계 지방 정부들은 모범적인 대응 방식을 통해 창의성과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 노력 동원의 차원을 넘어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위기의 악영향을 세심한 눈과 열린 마음, 혁신적인 렌즈로 분석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도움 방식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다시 취약계층에 우선순위를 두면 이 대유행에서 벗어나 더 나은 "다음 새로운 정상 (next new normal) "을 구축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제사회에 그 전례가 없는 시기로 최대한 연대, 협력, 혁신으로 대처해야 하며 위기 동안 우리의 도전과 노력에 대해 중요한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 회복력을 발휘하며 시민들의 권한부여를 지지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COVID-19 의 후유증에서도 효과적으로 세상을 재건하기 위해 우리의 집단적 시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원을 동원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더 나은 재건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 중심에 인권을 기반한 접근을 통해 어디에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며 사회적 포용 차원 또한 포함시켜야 합니다.

UNESCO 는 이 안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포럼의 다른 참가자들 포함하여 광주시를 시작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협력하여 일해야 합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봉사는 포용적인 도시 거버넌스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향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다시 한번 제 10 회 세계인권도시포럼 3 차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단호한 목적의식과 생산적이며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